

法友

100
번

진리의 **벗** 제31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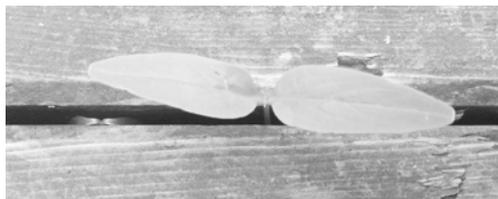
2019.05

부처님의 생애

법문 여어

문사수 ■

문사수법회



겉모양에 속지 않으니
마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렇듯 아상을 버리는 것이
부처로 사는 시작입니다

— 『금강경 범문』

시절인연	02	등공양 올리는 부처님오신날
부처와 부처끼리	04	불지는 복 많은 사람 • 會主 한담
진리로 피어나는 삶	16	부처님의 쿠키 사인 • 여여법사
명심법문	24	개성의 꽃을 피우라
경전강좌	36	찬탄의 노래 • 여여법사
보은의 메아리	45	범공양을 찬탄하며(1) • 범열법사
함께 따라 듣는다	49	누가 부처님을 상속하는가 • 심우도(5)
	55	문사수 청문기(3) • 길상화
발원합니다	64	등불공양 발원문
삶의 향기	66	변하지 않는 행복 • 시만 광인규
	68	아낌없이 피는 꽃 • 편지
염불문답	70	염불 수행법을 낮춰 말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73	편집후기
	75	법회소식



월간 진리의 빛, 법우 _ 2019년 5월 31호

발행인_ 김태영 | 편집고문_ 광인규 | 편집인_ 안은경 | 편집위원_ 김동숙 김동희 김석순 김혜숙 박부현 조은영

발행처_ 문사수법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 6 무원빌딩 8층 전화 031)966-3581-2 <http://www.munsasu.org>

편집 및 디자인_  (02)2279-2343

등(燈)공양 올리는 부처님오신날

나의 가면(假面)은 몇 가지일까?

카필라의 왕자가면을 썼는가 하면,
명상주의자 가면을 쓴 적도 있고,
고행주의자 가면을 쓴 때도 있네.
그래서인가? 깨치신 싯다르타를
부처님으로 알아 모시기도 하지만,
가당찮은 험담을 늘어놓으며,
모함에 급급한 사람마저 있었다오.

인심(人心)이라는 게 도대체,
자기 경험이나 지식이라는
익숙한 조건만을 앞세우기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
제 감냥만큼 살아갈 뿐이라.

부처님오신날은 별스럽지 않아,
다만 본래면목을 마주하는 날이고,
세상과 만나면서 뒤집어써왔던
역할과 노릇의 가면 벗는 날이며,
세상의 어떤 모습들보다 앞선
나의 참생명을 모시는 날일진데,
이런 절호의 기회를 맞아서도
또 새로운 가면을 쓰려고 하면,
어찌 오시는 부처님을 뵈까?

과거에 익숙했던 나와
미래에 무엇이 되려는 나는
펼떡이는 오늘의 삶이 아닌,
꿈과 같은 허상이기에,
바로 지금 숨 쉬고 있는 나,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나는,
오늘 두 손 가득 정성을 담아서,
오시는 부처님을 찬탄하오니,
세세생생(世世生生) 그리 살리다.

나무아미타불!
여여(如如) 합장

불자는 복 많은 사람

법문 | 會主 한담

불교는 깨침의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깨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본래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중생인 줄 착각하고 살다가 본래부터 부처였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본래부터 중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우리는 중생이므로 부지런히 노력해서 부처되어야 한다’ 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억만년을 부지런히 노력해도 ‘나는 중생이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행하는 사람은 절대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돌을 열심히 갈아서 거울로 만들겠다는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처가 된다고 하니까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새삼스럽게 구해야 할 것 같지만, ‘나는 중생이오’ 라는 착각만 버리면 됩니다. 먹구름이 걷히면 본래 있던 푸른 하늘이 저절로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무아미타불’ 입니다. ‘나무’ 함으로써 스스로를 중생이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고, 우리의 참생명인 절대무한의 아미타생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는 것입니다.

진정 복 많은 삶이란

주변을 돌아보면 종교의 참 뜻을 외면한 채, 자기의 참생명을 실현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복(福)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을 많이 하면 좋다니까 절하는 의미도 모르면서 절을 하는 가 하면, 경전을 독송할 때도 ‘경전을 자꾸 읽으면 좋다니까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지... 분명 부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그냥 무조건 읽습니다.

이처럼 오직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 복이 많은 것임을 말입니다.

‘경전을 많이 읽으면 복을 많이 누릴 수 있다’ 는 말의 참 뜻은 경전을 많이 읽으면 무엇을 구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복을 구하는 마음이 오히려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강경』을 독송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나 잘났다’ 는 마음, 즉 아상(我相)이 없어지는데, 아상이 없어지면 남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대접받고 싶다는 생각이 없어집니다. 또한 남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나,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겠다는 생각도 없어지며, 마침내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집니다. 더는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일이 없어지게 되니,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복 많은 삶이란, 자기를 낮추고
세상사람 모두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 많은 삶이란, 자기를 낮추고 세상사람 모두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본의 성공한 기업가 중에 ‘마쓰시다 고노스케’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성공비결을 묻는 말에, 많은 은혜를 받았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대답을 하면서, 특히 세 가지의 큰 은혜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어려서부터 노동의 중요성을 아주 잘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몹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에 한 끼의 밥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어려서부터 알게 되었고, 그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선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노동의 중요성을 아주 잘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건강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깨우쳤다는 것입니다. 그는 초

등학교 시절에 너무나도 건강이 좋지 않았기에 의사로부터 어쩌면 20세를 못 넘길지도 모르겠다는 말을 듣고서는 어려서부터 건강하고 건전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 힘썼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은혜는, 많은 스승을 만나서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마저도 마치지 못했기에 주위의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그들로부터 배울 것을 찾아내 끊임없이 배우며 살았다고 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분명 역경(逆境)이라 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이 사람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여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불자(佛子)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어야 됩니다. 특히,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대한 것처럼, 우리는 자기를 낮추고 세상사람 모두를 부처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한 분의 부처님만 모실 수 있어도 그 복이 한량없을 텐데,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부처님으로 모시면 그 복이야말로 진정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강경 독송의 공덕

이야기가 나온 김에, 『금강경』 독송의 공덕에 관해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경』을 독송하면 아상이 없어지므로, 더 나아가 남을 얹잡아 보고 헐뜯고 욕하는 마음이나 남에게 화내는 마음까지도 없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인상(人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상이 없어지면 이처럼 인상도 없어집니다. 세상 사람이 더는 나의 원수나 경쟁자가 아니라, 그들 모두가 나를 성장시켜주는 고마운 스승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인상이 없어지면 중생상(衆生相)도 없어집니다. 즉 우리의 삶이 운명이나 환경에 의해 지배받고, 남에 의해 지배받고 있다는 생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중생상이 없으면 수자상(壽者相)도 없어집니다. 내 생명이 따로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내가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은혜 속에 사는 것임을 알게 되어, 나의 참생명은 부처님생명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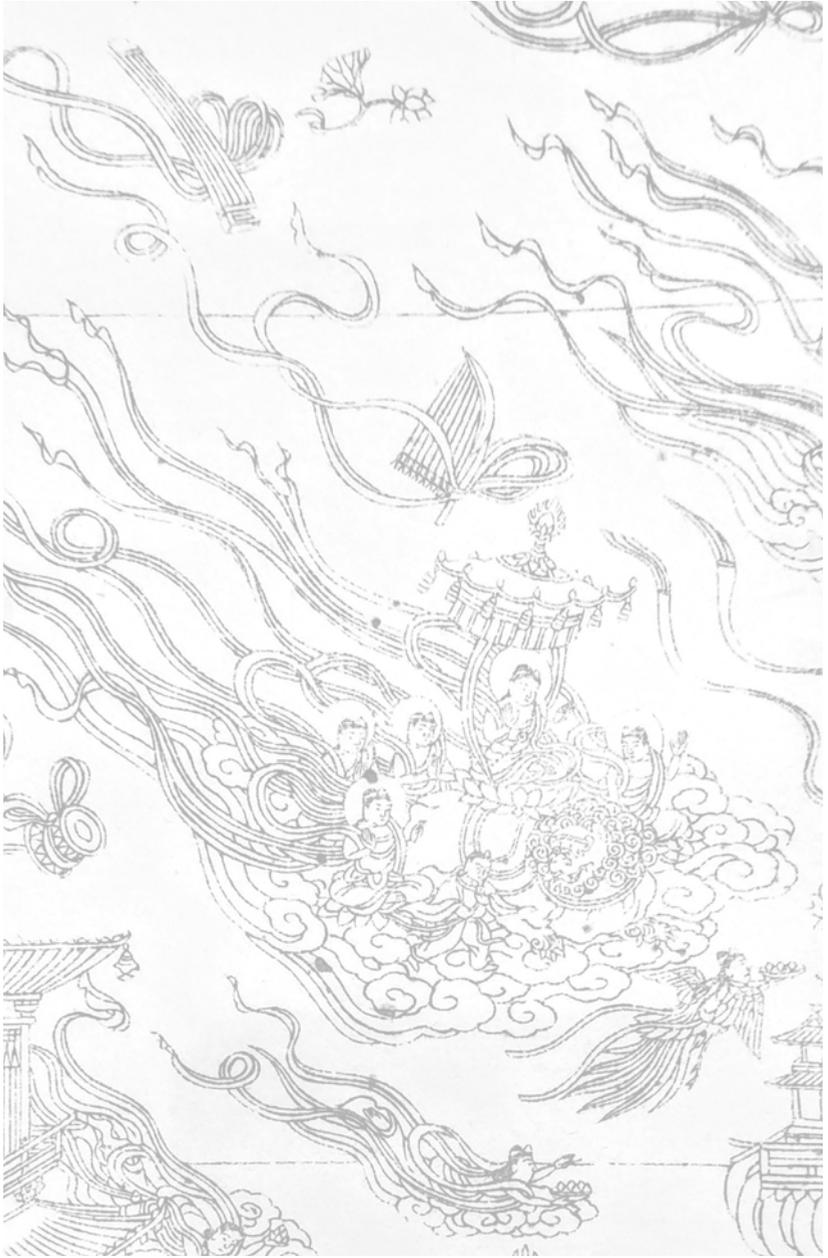
이러한 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을 없애는 것이 바로 불교 공부입니다. 그런데 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을 내 힘으로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특별한 수행처에 들어가 어떤 특별한 공부를 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상을 없애는 공부를 한다니까 참 좋은 일이지는 하지만, 아상을 없애겠다는 생각부터가 아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아상을 없애겠다는 생각도 아상이며, 이러한 생각은 처음부터 아상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니 이것 또한 아상입니다.

그런데 『금강경』을 자꾸 독송하면 아상을 없애겠다는 생각도 없이 아상이 없어지며, 자연히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나는 아상을 없애는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법상(法相)도 없어지게 됩니다.

『금강경』 제14분에, ‘왜 그러냐 하면 일체 모든 상을 여윌을 곧 모든 부처님이라 이름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이 없어진다는 것은

금강경을 독송하면 아상이 없어지므로,
더 나아가 남을 알잡아 보고 혈뜬고 욕하는 마음이나
남에게 화내는 마음까지도 없어지게 되는데...



부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본래 부처임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새삼스럽게 부처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치든, 못 깨치든 상관없이 우리는 본래부터 부처님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생명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이를 알지 못하고 '나는 중생이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괜히 있지도 않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만들고 그것에 스스로가 얽매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 많은 삶이 곧, 복 많은 삶

우리의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으



나에게 이로움을 주든 해로움을 주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욕바라미입니다

로 특별히 선발되었다는 것이고, 진정 인생을 뜻깊게 살 기회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인생을 뜻깊게 만들어 주는 여러 가지 문제를 무조건 싫어하고 피하려 든다면 그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것입니다. 나한테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나로 하여금 ‘나는 중생이오’ 라는 착각을 없애주는 좋은 공부 거리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특히 인욕바라밀은 혼자서는 닦을 수 없습니다. 나의 뜻을 거스르며 나를 못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인욕바라밀을 닦을 수 있습니다.

설령 누군가 내 목에 칼을 들이대며 위협한다고 할 때, 그로 인해 ‘몸뚱이는 죽어도 참생명은 그대로이다’ 라는 생각을 일으켜 몸뚱이에 대한 애착을 없앨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원수가 아닌 은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진정한 인욕바라밀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남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생각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억지로 참으면 그것은 병이 됩니다. 진정으로 참는 것은 참는다는 마음 없이 참는 것입니다.

내가 참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아상이고, 상대가 나에게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인상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참고 있다고 생각하면 중생상이고, 결국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수자상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참는다고 해도 인욕바라밀이 되지 못합니다. 나에게 이로움을 주든 해로움을 주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욕바라밀입니다.

나의 참생명이 부처님생명이기애, 애초부터 중생은 없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참생명이 다 부처님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본래 부처님생명입니다. 우리가 공경하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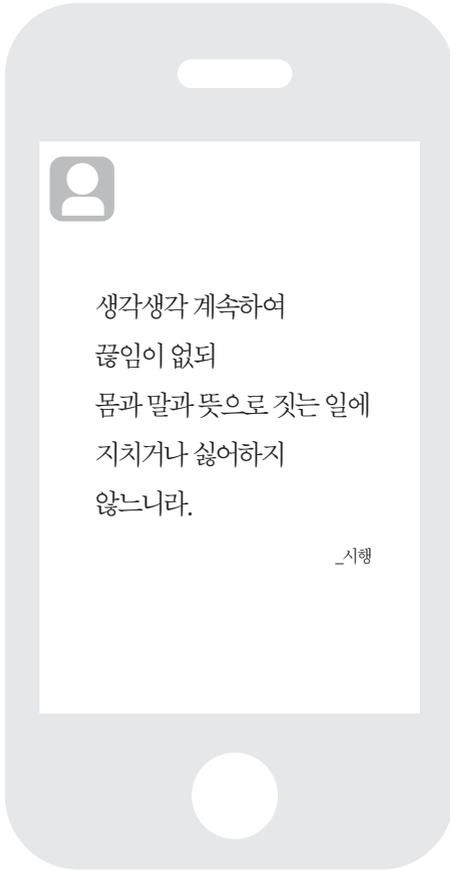
도 될 사람은 세상에 단 한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나의 참생명이 부처님생명임을 자각하는 사람은 남의 심부름 해주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님 아닌 사람이 없으니, 기쁜 마음으로 상대방을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디를 가든지 부처님을 만나게 되므로, 가는 곳마다 극락 아닌 곳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복(福)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바르게 알아 따로 구하는 것이 없는 삶이 오히려 무한한 복을 받는 삶을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정리 편집부



생각생각 계속하여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느니라.

_시행



* 법회에서 법문 듣고, 들은 법문을 되새기며 살아가는 법우의 가슴에 남는, 짙막한 경문 또는 법문을 소개합니다.

잘 먹고 사치한 것 너무 좋아마소.

죽음에는 노소와 귀천이 없고

인과응보 분명하다

_ 정진 발원문

부처님의 큐사인

법문 | 여여(如如)법사

진실한 모습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을 모시며, 지난 기념법회를 떠올립니다. 범우들이 서로 환한 얼굴을 마주하며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할 때면 ‘아,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참으로 감사하구나!’ 하고 느낍니다. 이와 같이 축하와 즐거움을 서로 주고 받을 때 사람들은 더러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동그랗게 모으면서 오케이 사인을 하죠?

이렇게 서로에게 ‘오케이?’ 라고 묻는 것은 ‘잘하고 있냐?’ ‘잘 지내냐?’ 뭐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 오케이 사인에 담겨있는 뜻을 가만히 새겨보면 ‘오직 나의 만족에만 국한된 표현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삶에 대해서, 부처님이 던지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부처님의 수인(手印)을 중심으로 생각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곳곳에서 탄신불을 모시고 관욕(灌浴)을 합니다. 관욕을 할 때 아기부처님을 보게 되는데, 이때 아기부처님의 손가락 방향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천상과 천하를 가리키십니

다. 한 손으로는 하늘 위를, 다른 손으로는 하늘 아래를 가리킵니다. 이것부터 사실은 부처님의 모든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한눈에 보이도록 나타낸 형상적인 코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다’ 라고 선언하시는 장면, 이 장면이야말로 모든 생명이



설법인

가진 기본적인 그리고 양보할 수 없는 자기 생명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부모나 자식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명예나 돈도 대신할 수 없는 생명의 절대적 가치가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의 선언에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이러한 기본적인 자리에, 나 자신이 항상 깨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우연히 복권을 주우면 가슴부터 두근거립니다. 갑자기 1등으로 당첨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부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 복권이 1등이 되면 어떻게 할까? 라는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쭉 펼쳐

아,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참으로 감사하구나!

이지요. 1등이 되면 ‘법회에 받은 보시해야지 그리고 3분의 1은 친한 도반하고 맛있는 점심을 먹어야지’ 하며 확대됩니다. 그다음에는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조금씩 주자, 뭐 이런 상상을 합니다.

그러다가 막상 복권 추첨하는 날이 다가옵니다. 추첨하는 날 오전쯤 되면 이제 당첨이 거의 확신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봐도 1등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법회에 반을 내놓기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4분의 1쯤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친한 도반하고 3분의 1씩이나 먹어? 그냥 만원 정도 하는 음식이나 먹지 뭐,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점점 내가 가질 게 많아지고 그러다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과를 확인하니 역시 팽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가졌던 꿈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세상의 신호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는 참으로 세상으로 상징되어 다가오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있지도 않은, 발생하지도 않았고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어떤 것을 붙들고 하루를 보내게 되고, 또 일주일을 보내곤 합니다.

진실로 세상이 나에게 보내오는 신호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축약한 것이 부처님이 던지시는 신호인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내 생명은 ‘하늘 위 하늘 아래, 참으로 존귀하다’ 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인종이나 언어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기후나 토양을 따지지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뛰어넘어서, 모든 생명에게 한결같은 메시지입니다. 부처님의 큐 사인은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뉴스의 앵커를 보면, 큐 사인이 울리기 전까지는 제멋대로 행동을 합니다.

진실로 세상이 나에게 보내오는 신호는
무엇입니까?



그러다가 큐 사인이 울리고 나면 그 사인에 걸맞은 행동을 합니다. 불편한 표정으로 있다가도, 갑자기 표정을 고치고 부드럽고 점잖은 인사말을 합니다.

우리는 앞서 이야기한 탄신불의 상징으로부터 큰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부처님의 큐 사인’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너는 그 모습으로 사바세계에서 몸뚱이를 받아서 태어났다, 그래서 어느 집안의 딸 혹은 아들로 어떤 역할을 해라’ 하는 큐 사인을 받은 거죠.

그 큐 사인을 받고 나서부터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시작했습니다. 또 누구와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역할을 나름으로 착실하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행동 하나, 말 하나를 배울 때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백 퍼센트 가동하지 않았습니까?

아기가 처음 걸음마 배우는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자신이 걸음마 배운 건 기억이 안 나도 다른 아이가 걸음마 배우는 과정을 보면 얼마나 치열한지 알 수 있습니다. 걸음마를 배우고, 말 한마디 배울 때마다 아이가 치열하게 학습을 합니다. 엄마, 엄마를 무수히 반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며 익혀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아빠인지 엄마인지를 익히는 과정도 치열한 학습의 결과입니다. 아마 아이를 키워본 사람은 다 공감하고, 또 직접 키운 경험은 없더라도 주변의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유심히 살펴본 사람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서 주어진 모든 역할을 익혀가면서

그 위대함을 발휘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익히는 과정 자체가 앞서가 버리다가 전부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학창시절 경연대회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심사위원인 한 교수님이 갑자기 원서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된 멋진 문장들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읽고 났더니 심사위원 교수님이 ‘그 내용이 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조금 창피한 이야기인데 저는 읽는 것에만 바빴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발음 좋게 읽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의 질문은 “읽었으면 그 내용을 이야기해봐” 였던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어린 나이에 당혹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언뜻 보니까 네 나이 또래보다는 발음도 좋고 괜찮다마는, 언어는 왜 하나?”

이 질문은 제가 지금까지 교훈으로 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잘하기 바쁩니다. 예를 들면 외국어 발음을 잘하려고 하죠, 언어만 그렇습니까? 요리도 잘하려고 하죠, 아이도 잘 키워보려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왜 하고 있냐?’ ‘그 의미가 무엇이나?’ 라는 질문을 깜박 잊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로 대부분의 사람이 무언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야?’ ‘삶의 내용이 뭐야?’ ‘너 누구야?’ 라고 물으면 갑자기 굳어집니다. 이럴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법문(法門)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출가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왜 살지?’
하는 이런 의문이 출가의 시작입니다

굳건한 자리

부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아니지!’ 라고 하시며 출가하신 것 아닙니까?

모두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세상 사는 연습을 몸뚱이로 하고, 머리로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때에 따라 익혀야 할 것이 많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감각훈련까지도 하는 것 같습니다. 촉감훈련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가 보면 유능한 사람 같습니다. 또 앞서 이야기한 대로 성실한 사람이라는 자기 만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뭔가가 빠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경계(境界)를 만나면 이 질문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난 누구지?’ ‘난 왜 살지?’ 이런 의문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출가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싯달타가 보리수(菩提樹) 아래에 앉는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리수 아래에 앉으셨을 때 그동안 익혀왔던 모든 것, 세상에 태어나서 익숙해졌던 많은 것, 몸뚱이를 비롯한 연관 지어진 인척 관계, 사회적 관계, 축적된 지식체계, 그 모든 것이 들끓어 오릅니다.

왜일까요? ‘이게 나야, 이게 나거든, 그런데 더 이상 뭘 의심을 해?’ 라고 요동을 치는 겁니다. 이것을 마(魔)라고 합니다. 수많은 마가 나타나서 유혹합니다.

‘됐어, 넌 그 정도면 됐어!’ ‘너 참 열심히 살았거든’ ‘너 같이 산 사람 별로 없어’ ‘그만하면 됐어, 괜찮아, 괜찮아! 세상 살아가면서 몸뚱이 건사 잘하고, 가족 잘 보살피고, 주변에서 모두 네가 왕 노릇 잘하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부응하는 것이 최고지 그 이외에 무엇이 있겠어?’

모두 잘 아는 마왕과의 대화가 이것이죠? 그동안 내가 익숙하게 해왔던 것들과의 타협을 유혹하죠. 수많은 것들, 내가 인정했던 사회적 권위, 정신적 권위, 명예, 지위 등이 다 포함됩니다.

또 싯달타를 가르쳤던 바라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스승들은 뭐라 그랬어요? ‘명상이 최고다, 의식(儀式)이 최고다. 그러니 제사를 잘 지내라’, 다시 말해서 삶의 밑바닥부터 삶의 꼭대기까지 즉 내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담겨있는 모든 것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익숙했던 그대로 살면 된다고 속삭입니다. 그럴 때 부처님이 되시는 장면인 보리수 아래에서의 깨침이 무엇입니까? 그때 상징화된 모습이 있죠. 그것이 바로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입니다.(계속)

정리 보산 / 녹취 신지

개성의 꽃을 피우라

(1)

여래(如來)는 모든 법(法)의 나아갈 바를 관찰하여 알고, 모든 중생의 깊은 마음으로 행할 것을 알아서 통달하여 걸림이 없으며, 또 모든 법을 끝까지 잘 알아서 모든 중생에게 온갖 지혜를 보여 준다.

(2)

가섭이여, 비유하면 삼천대천세계의 산과 내가 계곡과 평지에 나서 자라는 초목과 숲과 약초들의 종류도 많고, 이름과 모양도 각각 다르다.

뽁뽁한 구름이 가득히 퍼져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덮어 일시에 큰비가 고루 고루 흡족하게 내리면, 모든 초목과 숲과 약초들의 작은 뿌리, 작은 줄기, 작은 가지, 작은 잎새와 중간 뿌리, 중간 줄기, 중간 가지, 중간 잎새와 큰 뿌리, 큰 줄기, 큰 가지, 큰 잎새와 크고 작은 나무들이 상·중·하를 따라서 제각기 비를 받는다.

한 구름에서 내리는 비이지만, 그 초목의 종류와 성질에 맞추어서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비록 한 땅에서 나고 한 비로 축여 주지만, 여러 가지의 초목이 각각 차별(差別)한 것이다.

(3)

가섭이여, 여래도 그와 같아서 세상에서 나시는 것은 큰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큰 음성으로 온 세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에게 두루 외치는 것은, 저 큰 구름이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덮는 것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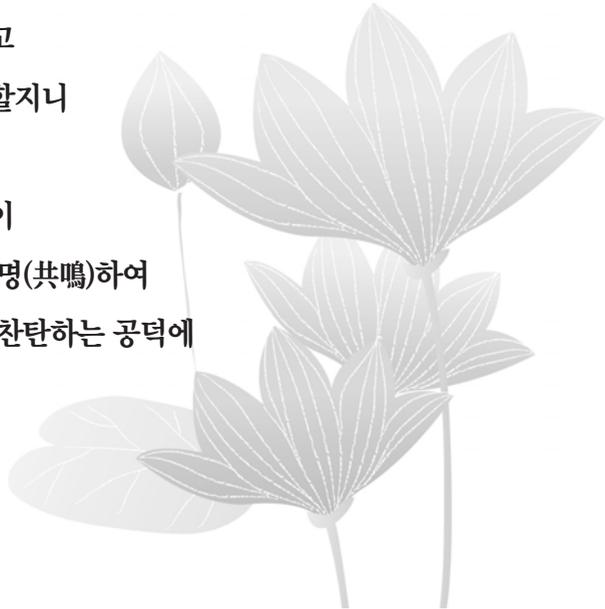
— 『법화경』

진리의 말씀 『법구경法句經』 강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명징하고 그윽한 노래로 다가오는
진리의 말씀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고
혼탁한 세상을 밝혀주는
생명의 노래에
귀기울여 듣고
입맞춰 노래할지니

생명의 합창이
온 법계에 공명(共鳴)하여
오직 생명을 찬탄하는 공덕에
함께 하소서!



문사수 경전학당 2019년 상반기 강좌
진리의 말씀, 법구경 法句經

- 강사** 여여법사(문사수법회 대표법사)
- 장소** 문사수법회 전법원
- 일정** 중앙전법원 2019년 3월 5일(화)~7월 16일(화)
오전반 10시30분 / 저녁반 7시30분
대전전법원 2019년 3월 8일(금)~7월 19일(금)
오후 7시30분
(정진원 및 기타 지역은 통신반 안내 참조)
- 동참비** 18만원(교재비 별도)
신한은행 100-023-865114 (사)문사수불교문화원
- 문의** 문사수 경전학당 교학처 031)966-3581
담당법사 범정(梵正) 010-9252-5055, mssac@munsasu.org

【통신반 안내】

- 시공간적인 제약으로 출석반에 동참할 수 없는 분을 위해 운영됩니다.
-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동영상으로 공부합니다.
- 여여법사님과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공부내용을 점검받습니다.

【장학보(獎學寶) 안내】

- 장학보는 경전학당 전용 장학후원보시 재단입니다.
 - 누구나 장학보 후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경전학당 동참비를 차등 후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장학보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경전학당 담당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경전학당 장학보 후원보시에 동참 발원하시는 분은 보시봉투에 '경전학당 장학보 보시'를 표기하여 보시함에 넣어주시거나, 아래 계좌에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학보 계좌 _ 국민은행 650702-01-371287 (예금주: 박기범)

불기 2563년(201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법회

산하대지가 싱싱하고 향기로운
생명력의 꽃을 피우는 계절,
내 삶의 터전에
부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원하시는 일들은 남김없이 성취되고,
지혜는 증진되며,
건강과 행운이 가득합니다.
오늘은 부처님오신날.
넘치는 기쁨으로 모두 함께 축하합니다.

봉축법회

- 일시 : 2019년 5월 12일(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각 지역 전법원
- * 식전 행사로 탄신불 관욕식이 있습니다.
- * 전법등 신청 접수와 각종 공양물 발원은 각 지역 전법원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일 전법등 신청은 혼잡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세요~

불기 2563년(2019년) 부처님오신날

온 세상을 밝히는 전법등 공양을 올립니다

생명의 빛은 나누면 나눌수록 밝아집니다.
이것이 전법(傳法)의 원리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전법의 원(願)을 담아
온 세상을 밝히는 전법등(傳法燈)을 공양 올립니다.

부처님가르침 만나서
나날이 밝게 살아감에 감사드리고,
나와 함께 온 세상이 밝아지도록
친지와 이웃에게도 전법등 공양을
적극 권선합니다.

● 신청 및 문의는 각 지역 전법원으로 ^^

중앙전법원 031)966-3581~2

대전전법원 042)485-8111

정진원 · 정토사 061)381-0108

〈전법등 발원 신청서〉는 팩스나 e메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법등 발원을 권하고 싶은 지인의 성함과 주소를 법회로 알려주시면 곧바로
그분께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적극 권선하시어 부처님과 인연 맺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19 문사수 국내구도여행

보살의 공양, 꽃 피는 생명!

관동지방은 예로부터 독자적인 불교문화와

선지식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땅입니다.

강릉단오제의 산신으로 모시는

범일국사의 기상이 살아있는 구산선문의 최고봉 굴산사지,

의상대사의 관세음보살 친견사찰 낙산사,

살아있는 보살을 친견할 수 있는 보물 신복사지,

심신의 피로를 말끔히 치유해주는

설악산 주전골계곡과 오색석사, 오색탄산온천

그리고 법회의 새로운 전법도량 연해실.

법문으로 살려지고, 지금도 공양하고 계신

보살을 친견하며 나를 투영할 때

새롭게 태어나는 자신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시간이 마련된 국내구도여행에

법우님을 초대합니다.



- 일 시 : 5월 25일(토) ~ 26일(일) 1박2일
- 코 스 : 강원도 양양 낙산사, 강릉 굴산사지/신복사지, 설악산 주전골/오색석사, 속초 연해실/바다향기로
- 숙 소 : 설악산 오색그린야드 호텔
(국내최고 오색탄산온천 무제한 이용)
- 동참비 : 7만원(초등학생 4만원), 교통비 별도
- 문 의 : 031)966-3581

문사수 구도여행단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법문을!

‘불교란?’ 오디오북 출시 [국문, 영문]

전법용 소책자 ‘불교란?’ 이
종이책, 전자책에 이어 오디오북으로도 발행되었습니다.
법회에서는 ‘듣는 책’ 시대에 발맞추어
다양한 법문컨텐츠를 오디오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 ‘불교란?’ 오디오북 다운 방법 :

- 팟캐스트 : 팟빵 앱 설치후 ‘문사수’ 검색 ...> 팟캐스트 ‘문사수 오디오풀’ ...> ‘불교란?’ 다운로드 청취
- 오디언 : 오디언 앱 설치 후 ‘불교란?’ 검색
- 교보문고, 네이버 오디오클립에 서비스 예정

* 출시 예정 오디오북 : ‘부처님의 생애’

■ 팟캐스트(인터넷방송) 청취 안내

팟빵에서 ‘문사수’ 를 검색하면 아래 두 개의 팟캐스트가 나옵니다.
‘구독하기’ 를 누르면 새로운 법문이 업로드될 때마다 스마트폰에 알림이 뜹니다.

- ▷ 여여법사의 불교와 삶 : 문사수 경전학당에서 진행된 강좌
- ▷ 문사수 오디오북 : 월간신앙지 ‘진리의 벗, 법우’, ‘불교란?’, ‘부처님의 생애’ 등 단행본

* ‘공유하기’ 로 법문을 쉽게 전해요^^

불기 2563(201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생애』가 발간되었습니다

부처님을 관념으로만 안다면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생명을 구현하려고 태어났다.”



부처님의 생애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궁극적인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 은 이 **여여(如如) 문사수법회 대표법사 / 100쪽**

발 행 처 **문사수(초판 2019년 4월)**

정 가 **1,000원**

구입문의 **031)966-3581**

입금계좌 **국민은행 161601-04-001600 (사)문사수불교문화원**

※ 국내 유통 대형서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호념_{護念}이란,

이미 부처님이 보호하시는

안심(安心)입니다



〈아미타경(39)〉

찬탄의 노래

법문 | 여여법사

구도여행

지난 호에서 삼악도(三惡道)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살아보겠다는 내가 있는 한, 내가 내린 결론을 가지고 측정과 평가를 계속하는 한, 삼악도의 삶은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도에 썬다 씨이라는 수행자가 있는데, 이분이 존경받게 된 것은 히말라야에서 겪은 일화 이후에 구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씨이 구도자의 삶을 살게 된 전환점은 이렇습니다.

젊은 시절에 씨이 친한 친구와 히말라야산맥으로 구도여행을 갔습니다. 구도여행 중 히말라야 산중에서 엄청난 눈보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골이 깊고 높은 산에 눈이 많이 내리니 눈 속에 길이 묻혀서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행 중인 두 사람이 당황하면서 여행을 계속할 것인지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여행을 계속하기로 하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눈보라가 심해지며 공포감도 점점 커졌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가는데, 발에 뭔가가 툭 하고 걸렸습니다. 눈을 치우고 보니, 사람이 눈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은 아미타불께서 법음을 펴기 위해 나타난 화현(化現)입니다

얼어 죽은 줄 알고 살펴보니 희미하게나마 숨결이 있었습니다. 혹독한 날씨에 눈 속에 묻힌 사람은 얼어 죽어가고 있는데, 막상 나도 길을 잃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건이 쌍과 친구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동행하던 친구가 더 똑똑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려면, 안됐지만 이 사람을 업고 갈 수 없다. 빨리 가자. 이 사람이랑 같이 가면 모두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쌍은, “아니다. 우리가 왜 왔느냐? 우리는 구도여행 왔다. 구도여행을 와서 이 사람과 인연이 있는가 보다 하고, 업고 가는 게 우리의 도리다” 하면서 둘이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쌍에게 “이 바보 같은 놈아!” 하고 혼자가버렸습니다.

미련한 쌍은 죽기 직전의 그 사람을 업었습니다. 온몸에 힘을 다 빼고 쪽 뺨은 사람은 무척 무겁습니다. 동사하기 직전의 사람을 업고 가니 땀이 나고 몸이 휘청휘청합니다. 절망했던 사람이 한발 한발 나아가려니, 무척 힘이 듭니다. 그러는 가운데 동사 직전이었던 사람은 쌍의 열기로 몸이 녹았지요. 등에 업혔던 사람이 깨어났습니다. 그때 마침 쌍이 지쳐 쓰러졌습니다. 이번엔 깨어난 사람이 쌍을 업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발에 뭔가 툭 걸려서 보니까, 먼저 간 친구가 얼어 죽은 거예요. 먼저 간 친구는 얼어 죽었고, 동사 직전의 사람은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때 쌍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깨달음은 내가 구한다고 해서 구해지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악도(惡道)라는 것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이 나빠서 공부 못하겠다, 연필이 나빠서 시험 못 봤다는 등 별소리 다 하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악도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니, 다 악도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아미타불께서 법음을 퍼기 위해 나타낸 화현(化現)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주안점은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아미타불의 화현(化現)이다. 내 아들로 나타나신 아미타불, 내 아버지로 나타나신 아미타불, 내 친구로 나타나신 아미타불이시다, 이렇게 법문을 들으라는 겁니다.

화현의 법문으로 들으면 얘기가 바뀝니다.

바람이 불 때

이어서 아미타경을 보면,

“사리불아, 그 불국토에는 바람이 약간만 불어도 보석으로 장식된 가로수와 나망에서 미묘한 소리가 나는데, 그것은 마치 백천 가지 악기가 합주하는 것과 같다.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모두가 자연히 염불, 염법, 염승 할 마음을 낸다”

바람이 약간만 불어도 보석으로 장식된 가로수와 나망에서 미묘한 소리가 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소리 중에 풍경소리가 아마 대표적인 소리겠지요. 처마 끝에 달린 풍경에서 나는 소리를,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시끄러워서 짜증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바람이 분다’ 는 것은 마음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바람이 부는 속에 나를 맡겼기에 가능합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생명의 바람인 업(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업이란, 생명력을 뜻합니다. 생명은 바람을 타고 일어나서 나투니 이를 업력(業力)이라고 하고, 이 업력을 공간적인 흐름으로 표현할 때를 업풍(業風)이라고 합니다. 즉 자기 생명의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탄으로 본래생명을 마주하면,
조화된 세계의 조화로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업풍을 해석하는데, 대표적으로 만해스님이 쓴 『흑풍(黑風)』이라는 소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은 만해스님이 목격한 우리 민족의 암담했던 현실을 표현했습니다. 흑풍에 대해 이해할 때, ‘어둡다’ 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난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옛날 한 장군이 있었는데요, 나이 들어 법문을 듣다가 ‘업풍이 몰아칠 때 내 마음이 검은 바람에 휘말리면 힘들다’ 하는 대목에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이 “꼭 알고 싶소?” 하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꼭 알고 싶다는 장군의 대답을 듣자마자,

“이놈아, 그것도 모르는 네가 무슨 장군이냐? 나이 먹도록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았느냐!” 고 다짜고짜 말을 합니다.

장군이 처음에는 가혹한 마음으로 물어봤는데, 듣다 보니 화가 납니다. “어디다 대고 감히 나한테!” 하면서, 평상시의 버릇대로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이놈아, 그게 바로 흑풍이 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흑풍에 휘말리면 인생이 뒤죽박죽으로 휘말립니다.

골목길에서 차가 마주했을 때 서로 양보하기를 바라며 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끝내 싸움으로 번지는 걸 더러 보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싸



우는지 잊어버리고 ‘내가 있다’ 는 결과만을 앞세웁니다. 사소한 사건 같지만, 이렇게 순간, 흑풍에 휘말리고 맙니다. 단순히 양보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법칙에서 보면 저쪽에 나타난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나의 분신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양보할 것도 없고 내가 무슨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서로의 생명이 교류를 하면 아무 문제없는 일인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 만약 우리가 그 바람에 휘말리는 마음이 되면 흑풍이 될 것이고, 경전의 말씀처럼 ‘장식된 가로수와 나뭇에서 나는 미묘한 소리가 듣기 좋다’ 는 것을 알게 되면, 마주하는 생명에 대해 감사하고 찬탄하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본래생명을 마주할 때는 감사와 찬탄으로 시작해야 하는데, ‘너는 뭘 잘 못했어’ 하는 어두운 말부터 하니, 그에 걸맞은 어두운 결과를 불러옵니다.

그러니 먼저 본래생명에 대한 감사와 찬탄부터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주하는 소리 즉 생명의 찬탄을 듣는데,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모두가 자연스럽게 염불, 염법, 염승할 마음을 냅니다. 조화된 세계의 조화로운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계속)

정리 수산 / 녹취 성심

극락에서 손편지??

석가모니부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이 부처님생명을 구현하려고 오셨다면,
우리도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이는 나의 참생명이 부처님생명을 알게 되면,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부처님의 생애』

POST CARD



* 절취선을 따라 지른 후 휴대하세요~

합장은 연꽃이요
이 몸은 공양구라
염불로 향을 피워
찬탄의 구름 되니
감응하신 부처님
오늘 나를 건지네

문사수법회 www.munsasu.org
전화 031)966-3581~2

법공양을 찬탄하며(1)

불교란 영문판이 나오기까지

범열(梵悅)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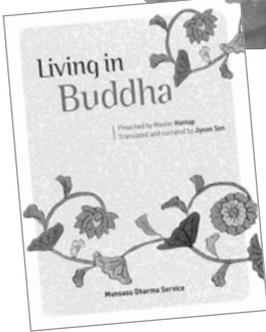
「불교란?」을 새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이내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미소가 지어집니다. 언제 어디를 가나 곁에서 늘 함께 하는 존재가 된 지 어느덧 9년... 그리고 보니 정이 많이 들었네요.

가방 속엔 늘 있고, 어디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벼운 차림으로 움직이게 될 때에도 작은 손가방이나 주머니에 지갑, 스마트폰 다음으로 꼭 불교란을 챙기는 게 습관이 된지 오래입니다. 대화 중에 인연이 되어서 전해주게 될 때에는 저도 모르게 “선물입니다~” 하면서 드리게 되는 것은 진심으로 귀한 선물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책자로 인연되셔서 부처님생명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하는 마음이 절로 우러나오니깐요.

「불교란?」은 불교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바르고 쉬운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문사수법회에서 제작하여 무료로 배포하는 소책자입니다.

라고 책자에 소개되어 있듯이, 2010년에 범우지 200호를 기념하며 전범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회주님의 근본법문을 엮기스만 골라서 정신법사님께



「불교란?」 오디오북 한글버전과 영어버전을
녹음하는 엄매성원법우(上)와 딸(순지윤법우 中)

서 정리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책자로 만들기 위해 내용 전개나 흐름에 대해 청년 법우님들의 의견도 반영하며, 해조음출판사의 손길을 거쳐 예쁜 책자로 탄생되었지요.

그간 6쇄 6만부가 발행 보급되었는데, 신병교육대 장병들에게 군생활에 힘을 주고자 군법당에서 요청하기도 하고, 부처님오신날에 신도분들 선물로 사찰에서 요청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법우님들의 소리 없는 법보시 후원 덕분에, 「불교란?」은 이번에 7쇄 7만부가 나왔고 앞으로도 10쇄 30쇄 50쇄까지 주~욱 발행되어 곳곳에서 소중한 인연을 맺을 것이라 믿습니다.

새삼스럽게 「불교란?」의 탄생부터 활발한 성장을 더듬어보는 이유는, 전법원력의 결정체인 불교란?이, 오래도록 품어왔던 영문판의 꿈이 실현되어 이번에 한글영어 합본으로 이 봄에 우리를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가슴 벅찬 일입니다.

단순히 번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공부해 갈 일연자를 법회는 기다려왔는데, 작년에 그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기업체, IOC, 방송 등에서 통번역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손지윤법우님이 고맙게도 큰 마음을 내주었습니다. ‘배워서 남주자~!’ 가 보살로 살아가는 문사수인의 모토라고 할 수 있겠죠? 본인의 능력을 법공양 불사에 아낌없이 발휘해준 손지윤법우님을 진심으로 찬탄하며, ‘능력은 쓰라고 주어진 것’ 이라는 법문을 다시금 새깁니다.

지윤법우는 법회의 대표아나운서인 성원법우님의 큰 따님인데요. 「불교란?」 과 법우지 등 오디오북 녹음을 위해 집에서도 열심히 연습하시는 엄마가 어느 날 침대에서 딸을 꼭 껴안고는, “엄마는 우리말로, 딸은 영어로 세상에 널리 부처님법을 전하자” 고 이야기 합니다. 엄마의 진심을 알아준 예쁜 딸은, “엄마, 나한테 이 말 하려고 얼마나 연습을 했어~?” 하며 웃더랍니다.

‘언제, 어떤 분위기에서, 어떻게 말을 꺼낼까?’ 오래도록 때를 보아오며, 사랑하는 딸이 본인의 능력을 부처님께 공양 올림과 동시에, 부처님가르침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길 바랬던 엄마의 마음. 어찌면 딸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부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자 하는 마음 속의 원이 깊어지고 있던 ‘시절인연’ 덕분일까요? 그렇게 엄마와 딸의 원이 만나 영문번역 불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불교란?」 영문번역을 계기로 지윤법우가 법사님들께 질문하고 배워가며 공들이는 모습이 귀하게 여겨지고 무척이나 감사했습니다. 프로페셔널하게 그리고 온 마음으로 기쁘게 하는 과정 또한 아름다웠습니다. ‘번역자보다 더 잘 낭독할 사람이 있겠나?’ 하는 엄마의 마음이 이미 딸의 마음, 이심전

심! 그렇게 해서 불교란 영문 오디오북까지 탄생된 것입니다.

올해 봉축일을 앞두고 출간된 『부처님의 생애』도 조산범우님의 음성으로 녹음이 완성되어 곧 출간 예정입니다. 오디오북들은 전자북으로도 제작되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동시에 유통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책을 듣는’ 시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간편한 오디오북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 법회는 더없는 전법의 호기를 맞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원을 세워 전법에 매진하며 부처님 은혜에 보답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다음호에서는 범우지를 비롯한 문사수 오디오북 불사에 동참하고 계신 여러 범우님들 이야기를 나누어볼까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 현재 「불교란?」 우리말, 영어 버전은, 팟캐스트 ‘문사수 오디오북’과 국내 대표 오디오북 서점인 ‘오디언’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깨달음의 길 · 심우도(尋牛圖)

5 누가 부처님을 상속하는가 牧牛_{목우} _ 소를 기르다



앞생각이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뒷생각도 뒤따르나니,
깨달음을 인해 진실을 이루기도 하며,
미혹으로 인해 거짓이 되기도 한다.
경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 마음이 일어났을 뿐이요,
코를 꿰고 뼈를 당길 뿐이니, 분별하여 헤아림을 용납치 않는다.

채찍과 고삐를 늘 몸에서 떼지 말라.
두렵구나! 멧대로 걸어서 티끌 세계에 들어갈까 봐.
잘 길들여서 온순하게 되면,
고삐를 잡지 않아도 저절로 사람을 따를 것이다.

* 이 글은 문사수법회에서 여여법사님이 법문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목우(牧牛)’ 장면은 붙잡은 소를 길들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로 상징되는 깨달음을 얻었다면, 반드시 이를 숙성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를 얻은 ‘득우(得牛)’ 의 바로 뒤에 이 ‘목우(牧牛)’ 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이 앞의 ‘득우(得牛)’ 장면을 보면, 그토록 바라던 소를 얻었지만 습기(習氣)라는 야성이 남아있는 소를 아직은 제대로 부릴 수 없기에 계속 채찍질을 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우(牧牛)’ 에서의 수행은 붙잡히고도 여전히 날뛰는 소를 때리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며 길들이는 과정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앞의 ‘득우(得牛)’ 의 단계는 단지 자기의 참생명자리를 조금 엿볼 수 있게 된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참된 생명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일 따름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기에 결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목우(牧牛)’에서는 붙잡은 소에 채찍질을 더하고, 고삐를 더 바짝 죄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우(牧牛)’에서 말하고 있는 수행은 결코 정적(靜的)인 수행이 아니라, 동적(動的)인 수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느 조용한 산속과 같은 특별한 곳에 틀어박혀서 닦는 수행이 아니라, 분주한 일상이 펼쳐지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의 수행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지금’ ‘여기’를 제쳐두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그러면서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면서... 이러한 온갖 일상을 떠나지 않는 곳에 삶의 진실이 있습니다.

앞서 ‘견우(見牛)’ 장면에서 살펴보았듯이 소(牛)로 상징되는 진리는 특별한 곳에만 있는 것도 아니며, 특별한 때에만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있는 것이지만, 이를 보지 못하다가 새삼 밝아진 눈으로 봤을 때 비로소 본래부터 언제 어느 곳에서나 있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가 증명되는 곳이 있다면, 이는 당연히 ‘지금’ ‘여기’를 떠나지 않는 일상입니다. 온갖 경계에 부딪치며 희노애락(喜怒哀樂)의 부침을 겪는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입니다. 그러므로 경계를 만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의 생명을 생명답게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경계든지 가까이 맞을 줄 알아야 합니다.

경계를 만났다는 것은 ‘나’가 설정해 놓은 ‘내 식’의 범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계를 만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 경계를 만나야 ‘나’를 내세우고 있는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습(習)이란 ‘나’에게 익숙하고 고착화된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고집하는 것입니다. 이 습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게 작동하기도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은밀하면서도 끈질기게 작동할 때가 더 많습니다. 자기가 어떤 습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다가 경계를 만났을 때 비로소 습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므로, 경계를 만나는 때야말로 ‘나’를 포기하는 공부할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곧바로 뒷생각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처럼 생각과 생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괴로움이 발생하는데, 이는 ‘내 식’의 잣대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의 아들을 보며 사랑스럽다는 생각을 하다가, 옆집 아들보다 공부를 못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는 신경질을 내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기의 아들은 적어도 옆집 아들보다는 공부를 잘 해야 된다는 ‘내 식’의 기준이 앞서는 한, 별로 사랑스럽지 않은 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생각이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뒷생각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 식’의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것이 있다면 그로 인해 괴로움이 싹틀 수밖에 없는데, 묵음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바로 익숙한 ‘내 식’의 무엇을 추구하는 끈질기기도 은밀한 습(習)의 작용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것입니다. 이 ‘내 식’의 추구를 포기하면 깨달음의 진실을 이루기도 하는 것이고, 이를 계속 고집하면 미혹으로 인해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경계를 만났다는 것은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계를 만

났다는 것은 어떤 실체가 있어서 그것이 경계로 다가왔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 를 내세우는 원인을 지었기에 상대대립(相對對立)이라는 결과가 펼쳐진 것입니다. 따라서 경계를 만났다는 것은 오직 스스로 마음이 일어난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 에게 익숙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고집하는 것, 즉 습(習)이라는 것이 남아있는 한 수행의 고삐를 계속 바짝 조여야 합니다. ‘내 식’의 잣대를 들이대며 분별하고 헤아리는 마음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송에서는 소라고 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소를 붙잡아 놓기는 했지만, 아직 야성이 남아있는지라 언제 다시 제멋대로 티끌세계에 들어가 버릴까 봐 두렵기 때문에 채찍과 고삐를 늘 몸에서 떼지 말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야성이 남아있는 소와 같이 아직 습에 젖어 있는 마음은 다스리기 어렵기 때문에 수행의 채찍질을 더하고 정진의 고삐를 더 조일 것을 재차 강조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만났을 때 경계를 잘 알아채서 경계에 끄달리거나 경계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찍이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채찍질을 가하고, 얼러주는 것이 필요할 때는 살살 고삐를 당겨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잘 길들이면 소로 상징되는 마음은 온순하게 될 것입니다.

‘득우(得牛)’ 를 했으면, 반드시 ‘목우(牧牛)’ 를 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수행한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소를 손에 넣은 ‘득우’ 의 단계에서 수행이 멈추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이라는 것은 결코 목적격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공부한 것이 있다면 이를 숙성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깊이 숙성시켜서 자기 것으로 충분히 소화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수행의 기본으로서, 바로 ‘목우’ 단계에서의 공부입니다.

이러한 공부를 일러 불가(佛家)에서는 ‘성태장양(聖胎長養)’ 이라고 합니다. ‘성스러운 것을 태아처럼 태 속에 넣고 키운다’ 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성태장양 하지 않은 공부는 진정 자기 것으로 소화된 공부일 수 없습니다. 약간의 성과가 있다고 해도 결코 방일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채찍과 고삐를 거두지 않아야 합니다.

정리 범정법사

기획특집

문사수 청문기 _ [3]

聞思修 聽聞記



기획특집으로 준비한 '문사수 청문기'는 지난 호에 이어 '3. 무애가를 부른다_원효 대사'에 관련하여 설화와 법문이 계속됩니다. 나무아미타불~

☞ 요석공주의 사랑

길상화(吉祥華)*

때는 신라 도성 경주 남천교. 한 대사(大師)가 요상한 표주박을 지팡이 꼭지에 매달고 춤을 추며 거리를 날마다 떠돌며 노래를 불러드립니다. 듣고 있자니 대사가, 수행자가 부를 가사가 아닙니다. 가사는, “그 누가 내게 자루 없는 도끼를 주려는가, 내가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찍어 보련다”

과연 이 가사의 의미는 어떤 뜻일까? 드디어 궁중의 무열왕에게도 이 행각이 전달되었습니다. 무열왕은 즉시, ‘이 대사가 아마도 귀한 부인을 얻어 아들을 낳고 싶어 하는 것 같구나. 나라에 위대한 현인이 있으면 그 이로움이 막대할 것이다’ 하고 국가의 미래에, 대사의 이상한 행각을 대비시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후, 대사는 거리에서 이 노래를 계속 불렀습니다. 괴이하지 않은가?

* 민영희; 시인, 대한민국 불교문화상 문학부문 대상수상, 현재 서울동부구치소 문학강사, 2017년 법무부 표창장 받음.

이즈음 요석궁에 과부 공주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요석공주입니다. 655년쯤 요석궁 앞에는 남대천이 흐릅니다. 스님 같지만 스님 같지 않은 요상한 종이 남대천에서 목욕하는 듯 물놀이를 하는 듯, 개울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요란하게 주위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누가 내게 자루 없는 도끼를 주려는가? 내가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찍어 보련다. 요석, 요석” 하며 일국의 공주이름을 외쳐대니 지나는 사람마다 미친 놈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나이는 젊은 20대 청년인 듯도 한데, 하루 종일 희귀한 짓거리를 하며 공주 이름을 부르니 참으로 궁에선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무열왕은 신하를 시켜 원효를 부릅니다. 원효는 이미 남산을 거쳐 문천교 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신하가 원효대사를 찾으니 대사는 신하를 만나자마자 일부러 문천에 빠집니다. 그러니 옷이 흠뻑 젖을 수밖에. 신하는 옷을 말리게 하려고 가까운 요석궁으로 모시고 가서 그곳에 머물게 했지요. 요석공주가 하인을 시켜 그를 자신의 거처로 불러들였습니다, 한눈에 요석공주는 이 범상치 않은 스님에게 반했습니다. 융숭한 대접을 마치니 드디어 밤이 되었고, 요석은 이 소중한 스님을 자연스럽게 침실로 이끌어 정을 통했습니다. 그 단 한 번 사랑으로 요석공주는 임신했던 겁니다.

그 후 10달을 채운 후 아들을 순산했습니다. 이것이 원효와 요석공주의 사랑 이야기요 불법의 확연한 인연법(因緣法)입니다. 이 세기의 딱 한 번의 사랑으로 그 유명한 설총을 낳게 된 겁니다. 이 설화가 불교의 ‘인연법’을 온전히 알게 하는 정수입니다.

하룻밤 사랑이 ‘이두(吏頭) 문자’를 발명한 설총을 낳게 된 겁니다. 원효는 설

총을 낱아 국가에 위대한 애국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인연의 고리를 섭수(攝受)하여 불교 인연법을 한방에 알아차리고 실천하기 위해 심안(心眼)을 기울여야 합니다. 위대한 무열왕 또한 국사를 위해 모든 일화를 국가에 이바지하려 승화하지 않았습니까?

부처님은 야소다라 공주와 혼인한 것을 훗날 라훌라를 낳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전생록을 살펴보면 야소다라부인은 전생으로부터 라훌라를 낳게 될 인연을 갖고 이 세상에 와서 싯달타와 혼인하게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이 출가하시는 날 밤 야소다라가 싯달타의 옷자락을 잡으니 손가락으로 야소다라의 배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는 궁을 나셨습니다. 이것이 라훌라의 잉태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염불 중-

원효와 요석도 단 한 번의 사랑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전생록과 원효와 요석공주의 인연을 비교하면, 그 중심에는 전생에 이미 인연이 마련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연은 피할 수 없는 이승의 업(業)입니다. 다만 결과가 어떠한지는 인연의 실행과 참생명으로 귀의하는 심안에 있을 것입니다. 철저히 인연만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 뒤에 오는 이승의 길흉화복을 계산해야 할 것인가?

싯달타와 원효는 모두 전생의 인연에 충실했습니다.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는 것도 자식을 낳은 것도 모두 전생의 인연입니다. 다만 전생에 닦은 것이 없어 끈질기게 현생의 삶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부처님생명에 모든 것을 회향하며 살면 밝은 내일을 맞이할 것입니다.

‘탐욕은 어디를 가도 만족할 줄 모른다. 그 지체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 사랑을 절망으로 이끌고 무서운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다’ 라는 경전의 말씀을 들었지만, 지난 시간 탐욕에 쫓기며 지내왔고 결국은 사업실패로 파산했습니다. 그 후 법회를 만나고 경전의 말씀을 바로 새기게 되었습니다.

법회에서 수행하시는 법우님! 바른 법을 만나신 것을 찬탄합니다. 바르게

한자리에서 염불하심을 찬탄합니다.

한때 저는 복이 내 품에 있는 것도 모르고 큰절, 큰스님, 유명 기도처를 복을 구하며 복, 복하고 무참히도 싸돌아다녔습니다.

말하자면 복이라는 기복에 중독되었었던 겁니다. 마약보다도 질긴 기복신앙에 깊이 들어가서 헤매는 것이 행복이고 불도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이런 증상은 자기도취였습니다.

그 당시 회주님을 자주



뵈어도 그저 ‘오 스님께서 오셨구나!’ 하고 그렇게 쉽게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었지요.

문사수법회에 좌정해 계시는 젊은 법우님! 저를 참고하여 인내하고 염불하십시오. 좋은 데가 따로 없습니다. 소원성취는 부처등신불이, 기도처에서 이루어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법문 듣고 염불한 만큼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를 기릅니다. 그 외의 소원성취가 밖에서 온다는 말은 듣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심심산천이 길러낸 대마초일 뿐입니다. 소원은 밖으로부터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미한 일이나 거대한 국가의 일이나 모두 안으로 지혜를 기르는 데서 성취합니다. 저는 지금 법회에서 법문 듣고 지혜가 새록새록 생겨 행복합니다.

지난 세월 믿었던 나의 불교는, 유명한 고찰이나 기도처를 찾아가 소원성취 기도를 하는 것쯤으로 알았습니다. 말하자면 부처님은 내 소원을 성취해주는 성현쯤으로 모셨을 뿐입니다. 말 그대로 기복이었었습니다. 이것도 한方便임엔 틀림없습니다만, 결과는 무식과 우매였고 날마다 거지였습니다. 매일 달라고만 빌었으니까요!

절집에서 그 많은 설화와 법문을 듣고서도 기복만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러 가서 절에서 대우해 주면 행복했고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건방이요 무서운 악업을 짓는 것임을 법문을 듣고 알았습니다. 억울합니다. 참회합니다.

지혜를 잊었고 또한 지혜를 알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구하면 되고, 돈 내고 시주하면 되는 줄 알고 살아온 수십 년. 경전학당의 여여법사님 법문과 대중법회에서 설하시는 법문을 듣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 부처님생명은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참생명은 부처님생명이로구나!” 하

니, 내 안에 이미 행복이 넘치고 참생명으로 사니 고마운 마음과 참회하는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이제는 지난 시절 허구한 날 거지처럼 구하던 ‘주십시오!’ 하는 소원을 빌 것도 아니고, 돈도 명예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법에 귀의 하여 나의 참생명을 찾으면 될 뿐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나무 아미타불하고 염불합니다. 지금은 꿈에서도 무서우면 곧바로 ‘나무아미타불’ 하다 깡니다. 희한하지요! 지금은 법문 중 -

원효대사는 20대 후반에 딱 한 번의 사랑으로 이두의 창시자인 설총을 낳았습니다. 설총은 한국 역사에, 아니 세계사에 유례없는 ‘이두 문자’ 를 발명한 학자요 성자입니다. 라훌라와 마찬가지로 그의 기록은 세상에 회자되지 않고, 조용히 진리를 위해 국가를 위해 모든 능력을 쏟았을 뿐입니다.

☞ 무애가

원효대사는 요석공주와의 인연이 파계로 이어졌지만, 불교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설에 파계 후, 광대들에게 춤출 때 흐드는 큰 박을 얻었습니다. 이상한 모양을 한 큰 표주박을 들고 춤을 추며 <무애가>를 설법인 양 불렀습니다. 화엄경에 ‘일체 무애인은 한 번에 생사를 벗어난다’ 라는, 어떤 외부의 장애도 받지 않는 사람 즉, ‘본래생명 자리’ 라는 뜻의 무애(無碍)박을 만들어 높이 들고 강산 곳곳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이때 지은 노래가 “모든 것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라야 생사의 편안함을 얻나니라” 라는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노랫가락, 그 노래를 <무애가(無碍歌)> 라

합니다.

〈무애가〉란 원효대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지은 노래입니다. 원효는 스스로 복성거사(卜性居士) 또는 소성거사(小性居士)라고 칭하고 속인 행세를 했으며, 이상한 모양을 한 큰 표주박을 들고 춤을 추며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전법을 하는 복장이나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원효대사의 전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옷은 가지고 있는 그대로이며 수행자의 복장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낄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석가모니부처님도 설법하는 장소는 나무 아래요 옷은 서민보다 못한 최소한의 복색이었다고 봅니다.

설총을 낳은 후, 속인의 의복을 입고 스스로 소성거사라 한 것은 절에서 판단하면 분명 과계임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원효는 자신이 전생에 지은 업보가 국가에 보은할 위대한 자식을 둘 것이 분명함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인연은 좋은 결과를 낳지요. 원효대사는 그 후 요석공주를 만난 적도 없고 설총을 챙긴 적도 없었습니다. 누구나 먹고 살 것은 스스로 갖고 태어난다는 말을 설총을 통해 보여줍니다.

요석공주 또한 야소다라부인과 같이 원효대사에게 단 한 번도 매달린 적이 없이 조용히 법문 설하는 장소마다 평생을 뒷바라지하고 다니며 법문을 듣고 마치 수행자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원효대사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미친 사람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하여 이해할 수 없는 점도 있었습니다. 거사(居士)들과 어울려 술집이나 기생집에도 드나들었고, 혹은 가야금과 같은 악기를 들고 사당(祠堂)에 가서 음악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 여염집에서 유숙하기도 하는 등 대중들과 쉽게 만날 수 있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가난뱅이나 어린이들까지도 모두 부처님의 이름을 알고 염불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일생은 화쟁(和靜)의 방법에 의하여 자리(自利)를 구하고 대중교화를 통하여 이타(利他)를 행함으로써 석가모니부처님 이후 '상구보리 하화중생' 으로 대표되는 부처님의 참 정신을 구현한 것으로 일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행동이라는 얘기도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는 말은 상대적인 해석에서 옵니다. 복장이 꼭 나와 같아야 합니까? 생활이 꼭 나와 같아야 합니까? 싯달타가 출가했을 때 모두 울고불고했습니다. 세인들은 미쳤다고 했겠지요! 이렇게 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상대적이란 걸 법회에서 법문 들으며 배웠습니다. 지금은 법문 중-

* 법회 봉행과 일상 수행정진 할 때 모시는 '법회 발원문' 을 소개합니다.

등불공양 발원문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지금 모든 생명들과 함께
등불 공양을 올리는 뜻은,
모든 생명들이 부처님가르침에 머물러
항상 밝게 비침을 얻게 하고자 함입니다.

바라옵나니 모든 생명들이
미묘하고 광택이 제일되는 빛을 얻어,
눈이 깨끗하고 흐릿한 병이 없어지이다.

바라옵나니 모든 생명들이
지혜의 횃불을 얻어,
청정한 부처님생명을 보아지이다.

바라옵나니 모든 생명들이
얻은 광명으로 거짓의 어둠 없애기를,
일천 해가 함께 비침보다 뛰어나지이다.

변하지 않는 행복

시만(是卍) 광인규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행복은 무엇인가?

행복은 밖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누리는 것이니, 자기 자신에 대한 청정한 믿음, 곧 부처님생명(念佛)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행복해집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이란,

자연의 이치가 그와 같음을 믿는 것처럼, 청정한 삶에 대한 구도심에서 선행의 공덕을 믿는 것입니다.

원효대사는 원래의 본심에 귀일(歸一)하는 진여(眞如)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부처님생명이 빛을 발하고, 진리에 목숨을 던지게 되는 귀명(歸命)의 신심을 가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열반경에도 이르시기를,
법(法), 뜻(意), 지혜(知慧), 대승경전에 의지하라고 하셨는데, 법(法)은 사람에게서, 뜻은 말을 통해서, 지혜는 지식의 축적에서, 대승경전은 보편타당한 진리에서 찾되, 그 수단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결국, 몸과 지식에 의존치 말고 근본에 대한 신심(信心)이 청정해야 부처님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중국 위산스님의 늦잠 일화와 공자의 제자인 안회(顔回)의 밥 짓기 일화를 통해서, 마음이 진실해야 변하지 않는 행복을 얻을 수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 일요대중법회에서 「무엇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라는 법문을 듣고, 그 감흥을 함께 나눕니다.

아낌없이 피는 꽃

존경하는 월간 법우님!

하얀 목련과 벚꽃이 꽃을 피워서 보는 사람이

아, 예쁘다!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완전한 봄이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곳에서도 골고루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봄바람처럼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라는 글귀가 생각납니다.

추운 겨울을 견디어 내고 맞이하는 봄이라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수십 년째 맞이하는 봄이지만 이렇게 아름답고 감사한 마음으로

봄을 느끼는 것은 생애 처음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세요?

월간 법우와 모든 법우님께도 인사를 올립니다.

법우지에 감사 편지의 글이 실렸다는 내용과 보내주신 법문집 등을
감사한 마음으로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불자님들과 돌려가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어둠을 걷어내는 지혜의 등불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생각 없이 살면서 참으로 많은 죄업을 지었던 나를 돌아보며
앞으로 바르게 살기로 다짐합니다.

참회와 속죄를 하면서 불교에 귀의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멈춤 없는 정진을 오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불교계 여러분들과 특히 월간 법우에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현재, 5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준비로 연등을 정성껏 만들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봉축법요식을 끝으로 수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대상자로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회한과 큰 아픔으로 잃어버린 세월이지만 이곳에서 불교를 만나고 부처님 법에 귀의하여 불자가 되어 제2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출소는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른 마음으로 수행을 하면서 앞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수감 중 이곳에서 불자로 살기까지 받았던 도움을 잊지 않고 회향의 삶을 약속드렸던 월간 법우에 다시 한번 맹세합니다.
그동안 받았던 감사한 도움을 다른 분들께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회향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새로운 시작이 회향임을 기억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월간 법우의 법보시가 영원히 지속하시길 바라고
그로인해 모든 분들에게 어둠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청하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기 2563년 4월
○○교도소 ○○○ 합장 삼배

듣기 위해서는 먼저 물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 전에 나아가 생명의 근원자리에 대한 절실하고 사무치는 물음을 내놓는 청법자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경전이 있는 것입니다. 물음이 물음다울 때 진정한 법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코너는 『문사수 법요집』에 실려 있는 '염불 문답'입니다. 새삼 새기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Q 많은 수행법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보다 효율적이고 즉각적임을 앞세우며 염불(念佛)을 낫춰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귀가 솔깃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A 요즘 젊은이들의 말투를 관찰해 보자면, '나' 이라는 말이 빈번히 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건방지다고만 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不安)한 심리가 표출된 결과일 따름입니다. 뭔가 자신을 내세우기는 해야겠는데, 손에 잡히듯 실감할 만큼 믿고 의지할 만한 그 무엇도 없습니다. 온통 불확실성(不確實性)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 익숙한 주변의 평가를 근거로 짜 맞춘 '나' 를 억지로라도 강조하기밖에 더하겠습니까?

비록 많은 수행법이 있다고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이룬다면 무아(無我)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고유성을 주장한 채 무아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본래부터 무아인 자신이 무아로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사실 현상으로 나타난 자신의 존재는 실체가 따로 없습니다. 다만 무한한 관

계성 속에서나 자신의 존재가 자리할 뿐입니다. 가족이나 직업 또는 나이 등과 같이 상대적인 것과 계속 관계하며 드러날 뿐입니다.

오늘의 어머니가 결혼하기 전에는 누군가의 딸로 불리었듯이, 나이 들고나면 또 다른 누군가의 할머니가 됩니다.

막 입사한 신입사원은 조금 전까지 대학생이었지만, 세월이 가면 사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본래부터 상대적으로 고정된 채로 머물기만 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연(因緣)에 따라 그렇게 불리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본래부터 무아(無我)인 자신이 무아로 살라는 가르침의 참뜻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착각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나는 본래부터 뭐야!” 하며 외치는 소리에 귀가 먹을 지경입니다. 이는 마치 스스로가 노예 되기를 자처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눈이 휘휘 돌아갈 정도로 빠른 사회적 변화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눈치나 살피면서 넋 놓고 살려는 것도 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삶은 그렇게 모독당할 만큼 하잘것없는 게 아닙니다.

우편번호가 바뀌었다고 그 집마저 바뀌지는 않습니다. 전화기를 교체한다고 해서 주인까지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이 그대로이고 주인이 그대로이듯이, 삶 그 자체가 바뀌지 않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뀐 것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거나 혹은 갖게 되었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단지 어떤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제아무리 휘황찬란한 도구를 갖

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생로병사(生老病死)와 같은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방법적인 추구의 결과에 의해서 행복해지리라는 보장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좋은 수행법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생명가치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나로부터 말미암아야 합니다. 자신이 바뀌면 자신과 관계된 세상도 따라서 바뀌기 때문입니다.

염불이야말로 그런 방법적인 차원이 아닌, 근원적인 수행임을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편집후기

따뜻한 봄날 꾸벅꾸벅 졸다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정토예불문 소리에 정신이 맑아집니다. 졸던 모습 그대로 예불문을 따라 합니다. 지심귀명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삼계의 스승이시고 사생의 자비로우신 아버지시면서 곧 나의 근본적인 스승이신....,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 정성껏 부처님께 합장합니다. 이렇게 졸다가도 마음 모을 수 있어서 지심(至心)으로 감사합니다.

예불문을 마치고 촛대와 향로를 담아두는 조그마한 쟁반을 가져와 촛불을 켵니다. 그리고 향도 피웁니다. 법회에서 부처님 전에 초공양을 올리고 난 후 몽당해진 초를 모아두면 그 초를 집으로 가져와 정진 모실 때 켵니다. 쟁반에 담겨 있는 향로도 향도 모두 선물 받은 것입니다. 살려진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몸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정신에까지 두루두루 걸쳐지는 것 같습니다.

집의 아이가 여행을 떠났는데 필요한 물건을 놓고 가서 다시 돌아와 챙겨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기차표를 취소하고 다시 끊었으며, 도착지의 예정된 일정이 어그러지게 됐습니다. 투덜대는 모습을 보면서 법문 들은 대로 나무아미타불 합니다. 벌어진 일입니다. 잔소리한다고 시간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잘 다녀오라고 말을 건네고 안타까운 마음은 그저 속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 아이도 인연 따라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나와 함께 인연 지어진 모든 사람이 그때마다 꼭 알맞게 벌어질 일이 벌어지면서 부처님생명이 꽃 핀다는 것을 새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제 앞에 놓인 생활을 살아갈 뿐입니다. 지심귀명례 하면서요.

며칠 있으면 부처님오신날입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이 날을 위해 올해도 어김없이 법회의 법우님들은 전법등(연등)을 만듭니다. 그리고 큰 원력을 모아 전법서인 『부처님의 생애』와 「불교란?」 국문, 영문 합본을 발간했습니다. 특히 부처님의 생애를 읽으며 숙연히 자신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거울 같은 이 책을 통해 나를 만나니, 그것이 부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감사히 받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기리며, 오직 원하옵나니 다함 없는 삼보님이시어, 대자대비로 저의 정례를 받으시고[唯願 無盡三寶 大慈大悲 受我頂禮]...

감사합니다.
회향실에서 유원 합장

2019년 전수염불 안내

精進院 專修念佛

정진원 전수염불

전수염불은,
염불수행에 대한 안내는 받았으나,
실제로 경험이 없는 초심자에게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오는 통로가 될 것이며,
정진을 지속적으로 한 범우님을 위해서는,
염불수행에 대한 체득화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원력 믿고 염불하여 성불한다!’ 는 모토 아래,
다만 오직 나무아미타불! 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 2019년 일정

* 5월은 국내구도여행 일정으로 쉽니다.

5차 : 6월 22일(토)~23일(일) 6차 : 7월 27일(토)

7차 : 8월 24일(토) 8차 : 10월 26일(토)

9차 : 11월 23일(토) 10차 : 12월 28일(토)

입재 토요일 오후 3시, 최소 30분 전 도착, 입재 후에는 동참 불가

▶ 참가대상_제한없음

▶ 접수안내

- 신청서 작성(전화 또는 내방) 후 종무실에 제출
- 선착순 접수, 회당 20명으로 제한
- 감사헌공을 올립니다.

▶ 준비물_ 정진모시기 편한 옷

▶ 문의

문사수법회 정진원 · 정토사

주소 : 전남 담양군 담양읍 깊은실길 112(학동2리 492-1)

전화 : 061)381-0108 팩스 : 061)381-5467

2019 문사수 해외구도여행

태국, 캄보디아

불교가 나라의 법이고,
불법과 함께 살아가는 현세의 불국토 태국!

현재의 태국을 만든 고대불교왕국 아유타야,
수코타이 왕국.

과거 동남아를 호령하는 불국토를 만들어
위세를 떨친 크메르왕국의 앙코르와트.

세계문화유산으로 증명된 과거의 불국토에서
현재의 불국토의 삶을 볼 수 있는,

동남아불교문화의 정수인 태국과 캄보디아로
범우님을 모십니다.

- 일 시 : 2020년 2월 5일(수) ~ 11(화) 5박7일
(이른 아침 비행기로 출국해서 밤비행기 타고 새벽에 도착하므로
딱찬 6일을 여행하는 알짜배기 일정입니다^^)
- 코 스 : 태국 수코타이/아유타야/방콕, 캄보디아 시엠립 앙코르와트
- 동 참 비 : 240만원(예정) _ 구도여행단 가입회원만 신청가능
- 신청기간 : **1차마감 2019년 6월 30일(예약금 30만원 입금 시 신청완료)**
- 입금계좌 : 국민은행 281901-04-067861 정경옥
- 회원가입 및 신청문의 : 구도여행단 단장 미락(010-8256-5703)
팀장 미탄(010-3385-2413)

문사수 구도여행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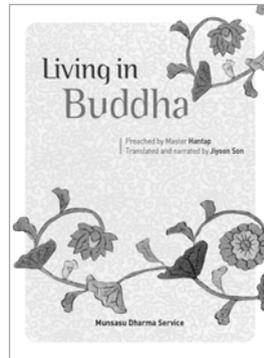
전법용 소책자 **‘불교란?’**

불자님들의 보시금으로 제작되어 무료
법보시되고 있는 ‘불교란?’ 소책자는
현재까지 8만부가 발행되었고, 이번에
국문·영문 합본이 나왔습니다.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부처
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자 문사수법
회에서 기획 제작한 전법서로서, 요청
하시면 언제든지 기쁘게 보내드리오니,
‘불교란?’ 을 통해 소중한 분들과 부처
님 인연 맺으세요!

**‘불교란?’ 을 검색하여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eBook : 교보문고, 리디북스
- 오디오북 : 팟캐스트 ‘문사수 오디오북’,
오디언



• 법보시 후원 동참 계좌

하나은행 292-910001-70804 (사)문사수불교문화원
국민은행 161601-04-001600 (사)문사수불교문화원

무료책자 신청 및 법보시 문의

031-966-3581, 010-2387-6305

문사수가 펴낸 책들



금강경 법문

대승불교로 들어서는 입문서,
지혜의 경전 '금강경'
한타 법문, 여여 엮음 | 483쪽
값 23,000원



부처님의 생애

궁극적인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법문
법문 여여 | 100쪽
값 1,000원



문사수 법요집

불교신앙의 울퉁은 길잡이,
신앙의 나침반
여여 엮음 | 899쪽
값 30,000원



정도에불문 강의

불자들의 신앙관을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교재
정신 지음 | 120쪽
값 3,000원

여여법사 법문 총서



시절인연 1·2

월간 法友(법우) 권두언
법문 모음집
여여 지음 | 1권 221쪽 /
2권 218쪽(세트, 전2권)
값 15,000원(세트)



만남법문

지금 누구와 만나는지
돌아보는 법문
여여 지음 | 128쪽
값 3,000원



인생찬탄

스스로의 생명가치를
찬탄하는 법문
여여 지음 | 276쪽
값 13,000원



가피충만

무한한 삶,
장엄의 기쁨을 누리는 법문
여여 지음 | 316쪽
값 13,000원

● 구입문의 : 문사수법회 031)966-3581~2

※ 국내 유통 대형서점에서도 구입 가능합니다.



문사수법회 후원보시를 기다립니다

한국 불교의 위상이 미신과 기복으로 점철되고 있는 현실,
이는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전함에 게을렀기에 발생하는
당연한 인과이겠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바른 법문’이 담긴 경전을 신앙하고,
그로부터 법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한국불교의 위상 정립은 물론이고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최선의 길이 될 것입니다.

문사수법회는 법회(法會: 법을 베푸는 모임)를 통한 전법불사(傳法佛事)에
신명을 바쳐 수행하기를 발원하였기에, 그 성취 또한 믿습니다.
이 큰 불사에 동참했고, 동참하고, 또 동참하실 시주님들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심을 찬탄드립니다.

* 법회 후원 계좌

국민은행 517101-01-145737 (사)문사수불교문화원

※ 월간 법우(法友), 진리의 벗 정기구독 및 후원(법보시)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기구독 및 후원 안내>의 전용 계좌와 CMS를 이용해주세요.^^



월간 진리의 벗, 법우 정기구독 및 후원 안내

월간 진리의 벗, 법우는

부처님 법을 세상에 전하는 전법지이며, 밝은 삶을 누리게 하는 신앙지입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 ▶ 대표전화 : 031)966-3581~2, 010-2473-5997
 - ▶ 팩 스 : 031)966-3584
 - ▶ 이 메 일 : msspub@munsasau.org
 - ▶ 우 편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6 무원빌딩 8층
문사수법회
 - ▶ 정기구독료 (1부 : 2,500원) 1년 : 30,000원

- 정기구독 및 법보시(후원) 계좌**
- 국민은행 161601-04-002227 (사)문사수불교문화원
 - 농 협 1103-01-035354 (사)문사수불교문화원

전국의 군부대, 교도소, 병원,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에 발행부수의 50% 이상을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법보시에 동참해주신 모든 법우님의 행복과 무한성취를 기원합니다.

〈CMS(자동이체) 후원 안내〉

자동이체를 통해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불법 흥포에 정기적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및 후원 보시금을 보내주신 분들을 찬탄드립니다! (2019년 3월 ~ 4월)

〈구독〉 김희정, 류상열, 박세림, 심은희, 오재숙, 유진옥, 이봉산, 이승원, 정민숙, 조준영, 황재숙 법우님

〈후원(법보시)〉 회주님, 여여법사, 정신법사, 명성법사, 범정법사, 범열법사, 범활법사, 중앙전법원, 대전전법원, 정진원, 강현자, 곽인규, 구본현, 김동숙, 김문희, 김석순, 김승경, 김양모, 김은숙, 김추옥, 김혜숙, 김홍양, 남기정, 문현숙, 박명순, 박부현, 박안덕, 박정순, 박지영, 박진서, 서정숙, 손미홍, 손지원, 손지윤, 신숙자, 신재란, 심은희, 안은경, 양선옥, 예성불교, 오경숙, 오종만, 유진옥, 유현성, 이광식, 이덕수, 이미아, 이상백, 이성진, 이은미, 이재화, 이종희, 이준일, 이현애, 전철균, 정경옥, 조준영, 최광수, 최교준, 최동윤, 최동재, 최세현, 최승옥, 최옥임, 최향순, 태창성, 한기묘 외 무기명 법우님 감사합니다.

* 보시명단에서 이름이 누락된 경우, 편집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사수 전법 네트워크

www.munsasu.org

“온 세상 불길 가득할지라도
뚫고가서 법문 들어라!”

『불설무량수경』

중앙전법원

[1052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 6 무원빌딩 8층 (행신동 709-1)
전화 031)966-3581~2 팩스 031)966-3584

대중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경전학당 매주 화요일 오전반 10시 30분 / 저녁반 7시 30분

아미타의 아이들 법회 매월 2, 4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예불정진 새벽 5시, 오전 10시 30분, 저녁 6시

대전전법원

[34837]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37번길 43(중구 선화동 21-1)
전화 042)485-8111

대중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경전학당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예불정진 새벽 5시, 오전 10시 30분

정진원 · 정토사

[57351]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깊은실길 112 (학동2리 492-1)
전화 061)381-0108 팩스 061)381-5467

참생명 법회 매월 1, 3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초하루 · 보름 법회 오전 10시

전수염불 매월 4주 토요일 오후 3시

예불정진 새벽 5시, 오전 10시, 오후 5시 30분

※ 신앙상담의 문이 항상 열려있으니 인근 지역전법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南無阿彌陀佛

부처님의 원력 믿고
염불하여 성불한다

문사수聞思修란 우리의 참생명을 드러내게 하는 세 가지 지혜를 일컫습니다. 문혜聞慧, 사혜思慧, 수혜修慧가 그것입니다. 즉,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聞] 스스로를 비추어 보아[思] 자기 삶을 수정함으로써[修] 정토淨土에 이르는 길입니다.

월간 진리의 벗, 법우 msspub@munsasu.org www.munsasu.org